

# 논술고사 문제지 (오후)

(인문계열) : 120분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자
수험번호		성명	

## ■ 일반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 배점은 [문항1]이 60점, [문항2]가 40점입니다.
2. 답안을 구상할 때 문제지의 여백이나 문제지 내의 연습장을 사용하십시오.
3.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십시오(연필, 샤프 사용 가능, 사인펜 불가).
4. 답안을 정정할 때 원고지 사용법에 따르십시오(수정액, 수정 테이프, 지우개 사용 가능).
5. 답안은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란에 작성하고, 답란 밖에는 작성하지 마시오.

※ 답안지는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 ■ 답안 작성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오.
2. 제시된 분량을 지키시오.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오.
4. 논술문의 형식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쓰시오.
5. 수험번호, 성명 등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란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드러내지 마시오.





# 논술고사(인문계열)

## ■ 문항 1 [60점]

[논제] 오늘날 과학기술은 핵과학, 생명공학, 인공지능 관련 연구 등 양날의 칼과 같은 실험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가치중립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과학자는 연구 결과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 대해 <다음>의 두 유형 중 한 쪽을 택해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1,000±100자, 60점)

< 다 음 >

**가치중립적 입장**

과학기술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중립적인 것이므로 자유롭게 발전하도록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윤리적 입장**

과학기술은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윤리적 책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조 건 >

1.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할 것.
2. 둘 중에 하나만 택하여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히고,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논거 두 가지를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하되, 두 개 이상의 제시문을 활용할 것.
3.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쓰고 이를 재반박할 것. 재반박은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아도 됨.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 < 제시문 >

(가) 과학이 전문적인 학문 분야가 되기 시작하였을 때 사람들은 과학을 통한 자연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기존의 불합리한 사고와 편견을 없애고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사고는 특히 인간 이성을 강조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인류의 무한한 진보를 추구하는 근거가 되었다. 계몽주의는 무지한 인간이 성숙한 이성을 통해 편견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본다. 인간 이성의 힘이 강조되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과학의 탐구는 자연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넘어 자연에 대한 통제와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힘으로 자리 잡았다. 과학이 지닌 능력을 누구보다 먼저 자각하고 강조한 사람은 베이컨이다. 그는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객관적이고 참다운 지식으로 보고 관찰과 실험에 기초한 과학 지식을 통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연의 이해를 넘어서 자연을 제어하고 변형, 조작함으로써 인간 생활에 분명한 유용성을 제공하는 것을 과학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존하는 베이컨식의 진보 개념은 근대 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더욱이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과학과 기술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면서 효율적인 생산 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이 사회 진보로 나타나게 되었다. 생명 공학 기술과 나노 기술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과학기술은 이전의 발전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발달하였고,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과학적 세계관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난치병을 정복하고 빠른 교통과 통신 문화를 만든 것은 과학 지식의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과학 지식이 없었다면 우주 진출이나 유전자 합성 등의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과학 지식 덕분에 현재와 같은 물질적 혜택을 영위하고 있고, 자연이나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다. 현대 사회의 발전은 과학이 객관적 산물이라는 것을 반증하며, 과학의 객관성은 현대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내고 있다.

독일의 생태 철학자 요나스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 시대에 책임 윤리를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로 한정하는 기존의 전통적 윤리관으로는 과학기술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해 인간 뿐만 아니라 자연,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해야 한다. 즉 우리에게서 과학기술이 인간의 생존과 다른 생명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명체를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는 모든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요나스는 행동하기 전에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는 ‘예견적 책임’을 강조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먼 미래에 끼치게 될 결과를 예측하여 생명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보전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왜 보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미래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해서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한 결과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연구가 현세대에게 아무리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하더라도 미래 세대와 자연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 그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 현대 과학기술의 결과가 예측 불가능한 점을 생각할 때, 과학기술의 단기적 혜택보다는 그것이 가져올 위험 앞에서 신중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윤리적 책임 의식을 갖고 과학기술을 활용할 때 과학기술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다. 우리는 오늘날 발생하는 과학기술의 문제를 예견하고 적절히 대처하여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학기술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활용

(나)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 우리는 어떤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가치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 그 사실을 발견한 과학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 오히려 설부르게 가치판단을 해서 과학적 진실을 외면하게 될 수도 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종교재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연과학은 자연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가치의 개입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따라서 사회과학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다.

과학자는 오직 자연의 숨겨진 사실을 밝히는 일에 몰두할 뿐인데,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며 자칫 과학 활동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원자구조와 원자핵에 대한 과학연구에도 과학의 가치중립성을 적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원자핵의 숨겨진 힘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치 면에서 옳다거나 그르다는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들은 자연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과학자들의 임무는 숨겨진 자연의 비밀을 캐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분열 연쇄반응’이라는 과학적 원리가 핵무기 개발이라는 기술적 응용을 통해 원자폭탄이라는 기술품으로 완성되었을 때, 원자폭탄은 현대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두 도시를 파괴하고,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입혔으며, 세계를 냉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원자폭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인류가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중심으로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런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원자폭탄이라는 기술적 응용에 의한 기술품과 달리 핵분열 연쇄반응이라는 과학 원리 자체에 대한 가치판단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핵분열 연쇄반응은 자연의 숨겨진 이치를 밝혀낸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더군다나 같은 과학 원리라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핵분열 연쇄반응의 경우, 이 원리의 기술적 응용은 핵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따른 원자력발전도 있다. 전자가 인류에게 전쟁과 파괴를 가져다주었다면, 후자는 평화와 번영을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인류는 원자력발전이 전기 생산의 많은 양을 의존하고 있다. 기술적 응용은 사회적 개입에 의해 그 방향이 크게 바뀌는 반면, 과학 원리는 자연에 숨겨진 사실을 발견해내는 것에 불과하다.

과학의 가치중립성은 그 자체로 철학적 논의를 수반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그 진위를 다루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렇지만, 과학의 가치중립성과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핵무기 개발을 다루고 있는 이 사례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라는 과학 원리가 핵무기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대단히 많은 과학적 원리와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적지 않은 과학 원리와 사실이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과학자들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핵분열 연쇄반응을 발견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 적극 참여했으며, 만약 새로운 과학적 사실과 그를 밝히기 위한 과학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핵무기 개발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엔리코 페르미는 ‘시카고 파일 1호’라는 소형 원자로를 완성하여 핵분열 연쇄반응을 성공적으로 제어함으로써 플루토늄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와 같이 핵무기 개발에서 과학자들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과학의 가치중립을 앞세워 과학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핵무기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구실에 불과하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활용

(다) 일본 기업에서 파란 장미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 과학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수천 년간 사람들은 파란 장미를 만들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파란 장미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파란 장미’라는 말의 의미가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일본의 한 기업에서 장미의 유전자를 조작해 파란 장미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이 파란 장미를 만들었다고 발표하자마자 세계 곳곳에서 한숨소리를 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수천 곳 실험실에서 파란 장미를 만들려고 수년 전부터 경쟁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 파란 장미를 만들어 낸 일본 기업은 돈방석에 앉은 반면에, 다른 실험실 과학자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이번에 파란 장미를 만들어 낸 기업이 수년간 쏟아 부은 돈은 무려 3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세계 수천 곳의 실험실에서 파란 장미를 만들고자 쏟아 부은 돈을 전부 합하면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돈과 과학자의 노력을 쏟아 부을 만큼 파란 장미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만약에 파란 장미를 만들고자 쏟아 부은 돈과 노력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몇 년 전부터 가을만 되면 세계보건기구 같은 곳에서 일하는 과학자, 의학자들은 긴장한다. 바로 ‘조류인플루엔자’, ‘조류독감’이라고 부르는 전염병 때문이다. 이 병이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병의 치료약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나마 이 치료약인 타미플루는 로슈가 판매권을 갖고 있어서, 이 기업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아시아,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 이 전염병이 확산된다면 수백만 명이 어쩔 수 없이 죽을 시간만 기다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정 탓에 많은 과학자, 의학자는 지난 10년간 정부, 기업이 나서서 이 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약을 개발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경고해 왔지만 아무도 이런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순서대로 연구·개발되는 게 아니라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 순서대로 연구·개발되고 있다. 사람의 생명, 인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위기에 대응하는 연구도 돈벌이가 안 된다면 뒤로 밀리는 게 현실이다.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과 무관한, 아니 어쩌면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과학기술이 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과학기술자 사이에서도 과학기술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리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인류를 파멸로 이끌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활용

(라) 침몰할 위험에 처한 배가 있다. 다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일부 승객을 강제로 배 밖으로 몰아내는 것과,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채 모두가 무사하기를 기도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일까? 이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문제는 도덕 규칙을 그대로 따르라는 의무론적 윤리설과 최선의 결과를 추구하는 결과론적 윤리설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결과론적 윤리에서 옳은 행위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최선의 결과란 특정인에게 치우치지 않고 행위 당사자들 모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가장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결과를 말한다. 결과주의 윤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세상의 악을 최소화하고 선을 최대화하고자 하며, 가능한 한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

결과론적 윤리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불행을 감소시키는 것을 옳은 행위로 간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복과 만족을 불러오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덕적인 삶으로 이해한다. 도덕적인 것이 그 자체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곧 도덕적인 것으로서, 좋음이 옳음을 낳게 된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그 결과이므로, 비록 현재 통용되고 있는 윤리 규범을 어기게 될지라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만 있다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요구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결과론적 윤리는 보편타당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결과의 효용성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적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의무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의 원칙을 중요시한다. 옳은 행위란 결과와 상관없이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하는 행위이다. 설사 어떤 행위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선사하지도 못한다 하더라도 진실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행해진다면 옳은 행위라고 여긴다. 이는 행위를 낳은 의지가 선하기 때문이며, 행위자의 의지만이 온전히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무론적 윤리의 대표로 칸트의 윤리론을 꼽을 수 있다. 칸트의 윤리 사상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는 선의지, 도덕 법칙,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칸트의 윤리 사상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도덕의 보편성을 확립하였다. 정언 명령은 조건적인 명령이 아닌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정언 명령은 “네 의지의 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도덕적 의무를 제시한다. 이는 각자의 행위 격률이 보편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에 맞게 행위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또한 정언 명령은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언제나 그리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는 도덕적 의무를 제시한다. 여기에는 인간이 결코 훼손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음이 담겨 있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활용

(마) 과학을 늘 중립이라고 말한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것이다. 단지 새로운 물질이나 현상을 발견한다든지, 그것을 응용하는 기술이 진화하는 것일 뿐이다. 다만 과학을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과학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할 때 진면목이 나오는 것이다. 인류에 복리를 가져올지, 아니면 해를 입힐지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과학기술을 사용할까에 달려 있다.

다이내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도 두 가지 관점을 고민한 과학자 중 한 명이었다. 그가 개발한 다이내마이트의 파괴적인 힘은 토지 개간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는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힘은 적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전쟁에서도 사용되었다. 그 엄청난 살상력을 눈앞에서 본 당시 사람들은 그를 두고 ‘죽음의 상인’이라고 떠들었다. 그런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자 노벨은 과학자로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 노벨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사재를 기금으로 하여 상을 제정하겠다는 유언을 남겼고, 화학, 물리학, 생리학, 의학, 문학 그리고 세계 평화에 뛰어난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는 ‘노벨상’이 생겼다.

노벨의 갈등처럼 과학기술은 악용되면 인류를 파멸시킬만한 부정적 요소를 갖고 있다. 자신이 개발한 과학기술이 악용될 가능성을 누구보다 빨리 아는 사람은 그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 자신일 것이다. 노벨도 자신의 발명이 전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일찍이 알았을 것이다. 과학자는 인류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사용되면 위험하다고 경고할 의무도 있다. 과학자라면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악용된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를 우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윤리적 사고를 멈춰서는 안 된다.

반면 독일의 실존 철학자 야스퍼스는 ‘기술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수단이다. 그것은 인간이 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드느냐, 기술이 인간의 무엇을 위해 이바지하느냐,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기술이 만들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일부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이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과학기술이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에 윤리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 물론 과학기술 이론의 사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험이나 관찰과 같은 객관적 방법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치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과학기술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고, 연구의 결과를 현실에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상대성 이론이나 원자 물리학 이론의 객관성을 검증하는 과정에는 어떤 가치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를 응용하여 원자 폭탄을 개발한다는 목적을 설정하거나, 원자 폭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 연구도 그 목적을 설정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만약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가 개입된다면 돌이킬 수 없이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실제로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원자 폭탄이 투하되어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비판적 접근을 위해서는 올바른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과학기술 연구에 담긴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윤리적 목적에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판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활용

■ 문항 2 [40점]

[논제] 아래에 제시된 5개의 <자료> 중 적절한 것을 근거로 들어 <다음>의 1) ~ 3)에 대해 서술하시오.  
(700±100자, 40점)

< 다음 >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 20%인 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화는 사회경제적으로 실버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 경제성장 둔화 등의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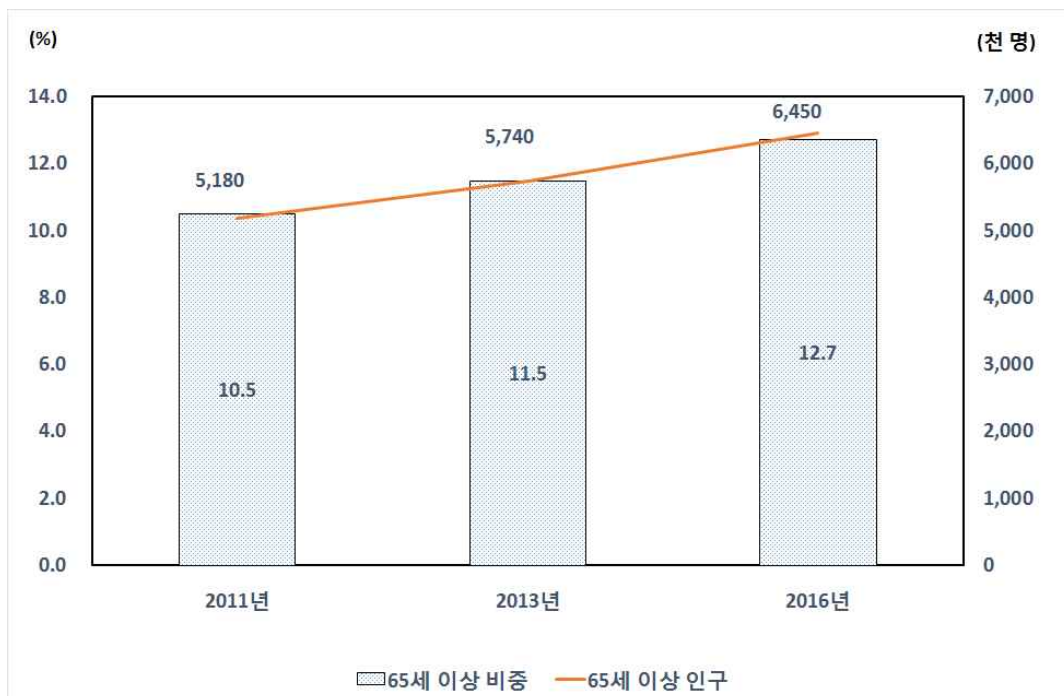
- 1) 고령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을 분석하시오. (10점)
- 2)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통해 밝히시오. (15점)
- 3) 고령화로 인해 정부가 직면하게 될 문제점을 자료를 토대로 지적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15점)

주) 대한민국에서 노인이란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분류됨.

고등학교 『사회』 활용

< 자 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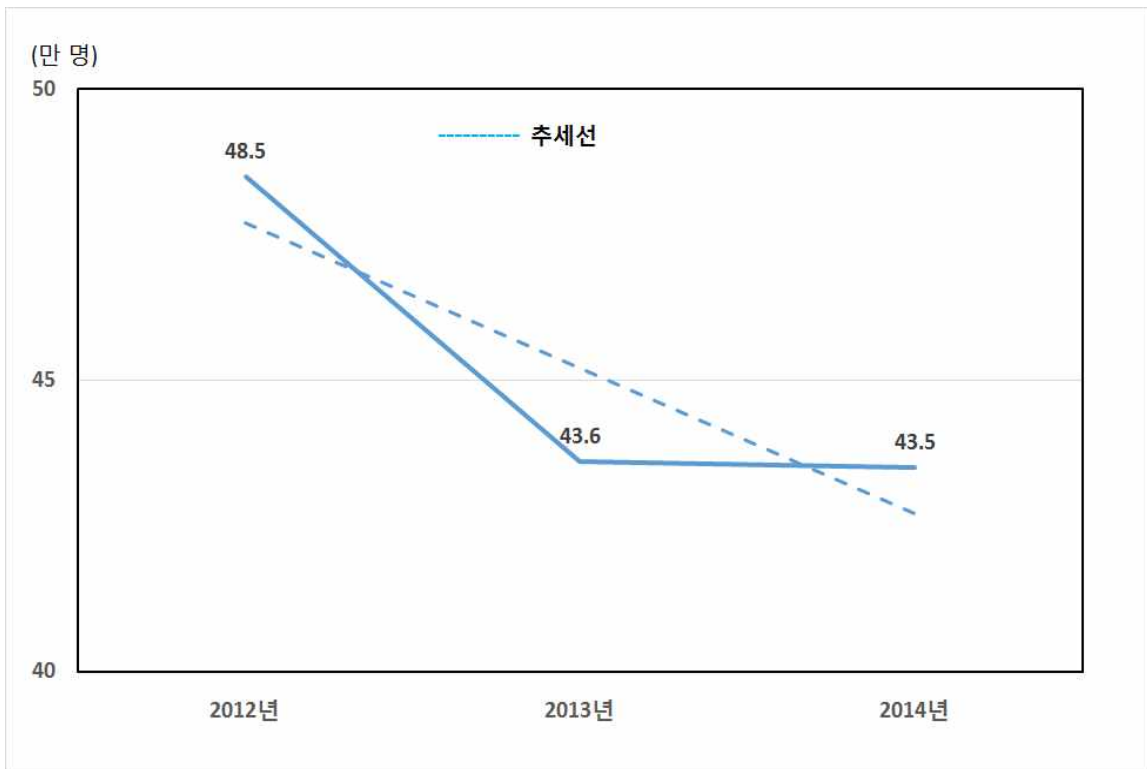
<자료 1> 고령인구 추이



출처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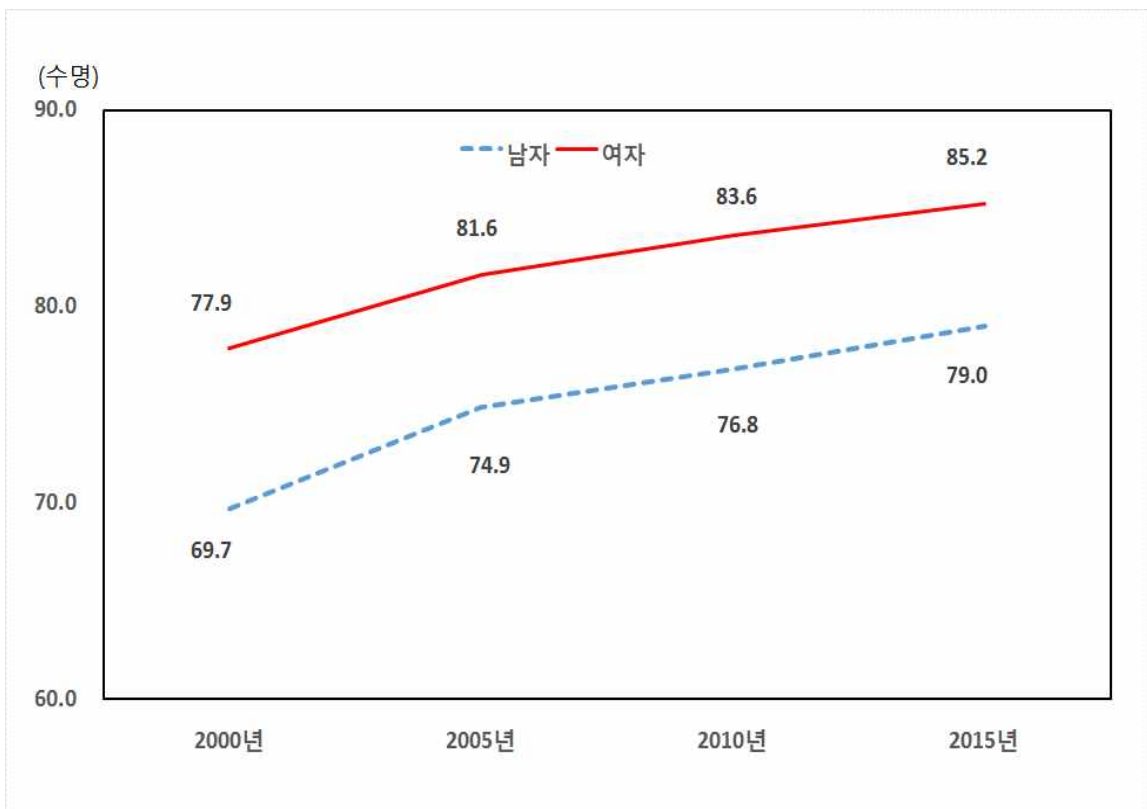
주) 65세 이상 인구는 각 년도 말 기준임.

### <자료 2> 출생아 수



출처 : 통계청

### <자료 3> 기대수명



출처 : 통계청

주) 기대수명 : 특정 연령의 생존자가 앞으로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말함.

<자료 4> 진료비

구 분	2011년	2013년	2016년
65세 이상 진료비(단위 : 억 원)	152,860	180,565	250,187
전체 진료비(단위 : 억 원)	462,380	509,540	645,770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단위 : 원)	250,670	267,790	328,600
전체 1인당 월평균 진료비(단위 : 원)	78,420	85,210	106,290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 비율(단위 : %)	33.1%	35.4%	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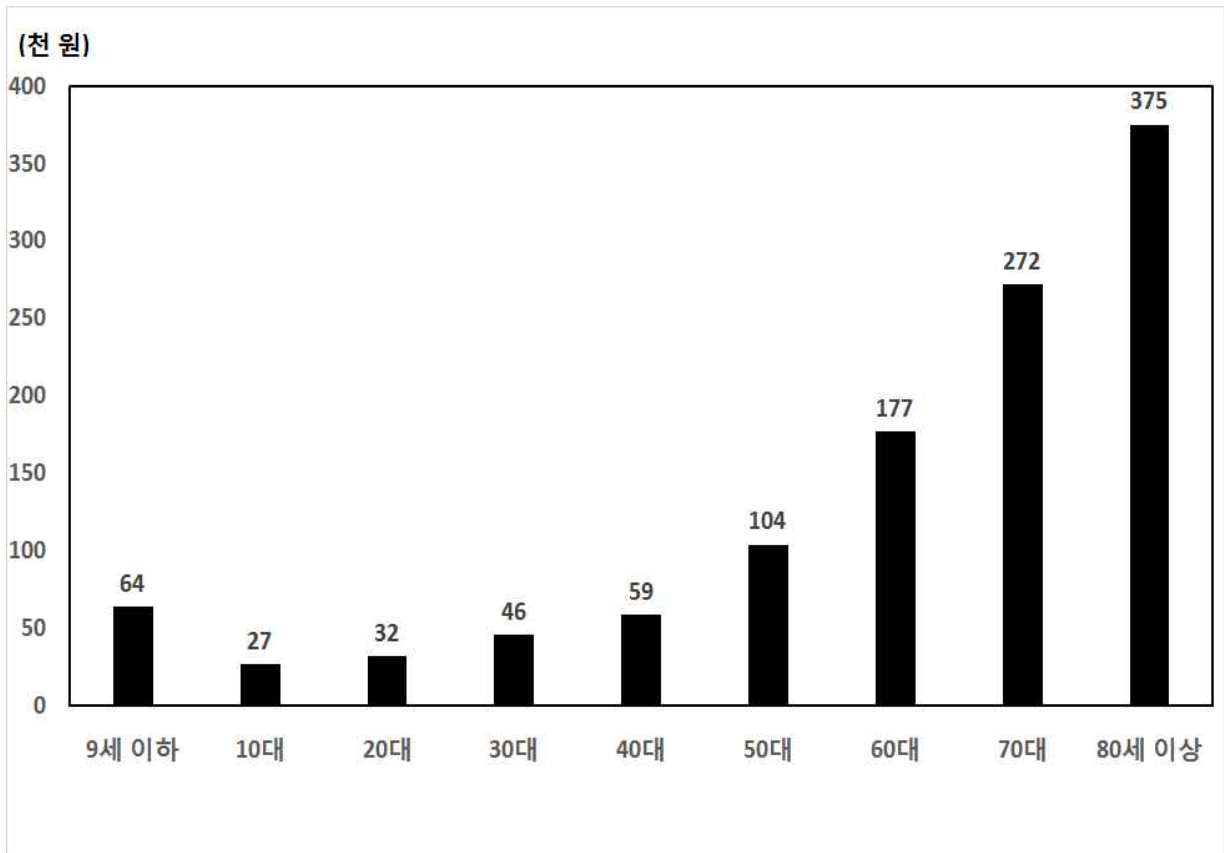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주) 1. 지급기준, 적용인구는 년도 말 기준으로 해당년도 건강보험 적용인구수 기준임.

2.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진료비 / 월평균 건강보험 적용인구

3. 단위 미만의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이므로 항목 간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5> 2013년 연령대별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1인당)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

주) 각 기준단위별 이하의 숫자는 고려되지 않음.









